

라이브 방송을 못하는 미성년자.

202311184 박보휘

1. 서론

우리는 현재 미디어 매체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으며, 미디어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현재 미디어의 영향력 또한 커져만 가고 미디어는 현재 우리 우리에게 모든 측면에서 일상적인 존재로 자리를 잡을 수 밖에 없다. 미디어는 우리에게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전에 비해서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이에 따라오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 중에 2019년부터 미성년자와 동영상과의 관계가 언급되고 있다. 최대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라는 기업에서 2019년부터 미성년자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한하는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내놓아 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소아성애자들이 미성년자의 동영상을 악용한다'가 유튜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정책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러한 대응 정책이 과연 신뢰가 있는지와 무조건적으로 따라도 되는지 대한 견해를 다루고자 한다.

2. 본론

- 미성년자의 자유

아직 만 14세가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에 대해 충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다. 유튜브의 핵심 기능 이용이 미성년자에게 제한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유튜브'의 파급력이 큰 만큼 이 정책에 대한 찬반논쟁이 대립되고 있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성년이 되지 않은 아동 유튜버, 즉 '키즈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라는 주장이 있다. '유튜브'는 실시간 영상과 댓글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시스템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유튜브는 2019년 2월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한 댓글 기능 사용을 중지한 사례가 있다. 또한 유튜브 내에서는 방대한 자료가 저장되어있기에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을 원활하게 찾고 삭제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서 '키즈 크리에이터'에게는 피할 수 없이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유튜브 활동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정책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유튜버는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다. '정책을 어긴 영상들이 발견되면 즉시 방송 중단 조치된다'라는 규제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은 해당 정책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자녀의 스트리밍 방송이 갑자기 중단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속에서 많이 문의가 발생하고 있다.

- 아동범죄 속출로 인한 미성년자의 자유 제한

유튜브 측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추천 알고리즘이 아동성애자 범죄를 자극하는 등 아동 범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유튜버 맷 왓슨은 유튜브의 추천 목록을 '웜홀'이라 일컬으며, "추천 알고리즘은 소아성애자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정보를 교환하게끔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용자가 선정적인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더 어린 여성과 아동들의 영상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유튜브는 아동 및 미성년자가 착취 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영상 댓글을 막겠다고 밝히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스트리밍 제한 및 금지 정책을 정당화하기에는 기준이 불투명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유튜브의 입장을 물었고, 이에 유튜브 코리아는 "유튜브는 이 정책이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방편이라 확신합니다."라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유튜브는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개선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현 상황의 최선의방법이라 단정 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댓글이 허용된 키즈 크리에이터라 해도 동영상별로 댓글 기능 제한 여부는 제각각이다. 검색 결과 목록, 발레, 체조 등의 콘텐츠는 대체로 댓글이 차단됐다. 하지만 이에 차단되지 않은 콘텐츠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정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처럼 콘텐츠별로 댓글 차단 정책 적용 여부가 다르게 나타난다. 유튜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키즈 크리에이터'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키즈 컨텐

츠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정책의 강화는 국내 키즈 크리에이터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반론/재반론

성범죄의 실제 사례와 피해자들이 있으며 유튜브는 미성년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 사회 및 사법당국과 협력하고 아동 보호 관련 최신 연구와 정보를 지속 주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책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행동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미성년자 스트리밍 제한이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미성년자를 이용한 장난과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이에 대한 대응과 활동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 사회 및 사법당국과 협력하고 아동 보호 관련 최신 연구와 정보를 지속 주시만 해서는 문제가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튜브는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미리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사이트에서 제한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게시하며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제한 정책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물론 있다. 모두가 규정에 대해 접하기에 어렵고 복잡한 가이드 방식제공하고 있기에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가이드를 제공받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스트리밍 제한 규정의 경우 명확한 제한 기준이 없기에 각 채널의 형식과 사람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는 영상과 삭제되는 영상이 있기에 정책이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유튜브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기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아이디어, 지식 등을 공유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로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무궁무진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미성년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을 제한하고 차단하는 것은 미성년자들의 자유를 침해라고 본다.

자동 인식 시스템의 오류를 보완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람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두가 규정에 대해 쉽게 접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복잡한 가이드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정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평한 시스템을 형성하고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순히 가벼운 장난도 범죄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미성년자 스트리밍 제한의 원인이 이러한 정말 성범죄 때문이라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관련된 처벌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며 이들의 자유를 위해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참고문헌

- 최유란 기자 "유튜브 미성년자 라이브 스트리밍 제한 논란 아동 보호 위해 당면 VS 표현의 자유 침해", 어린이동아 2019년 6월 19일 수정, 2023 05 22 접속 <https://kids.donga.com/?ptype=article&no=20190619180805985646>
- 김인경, "유튜브, 미성년자 단독 라이브 스트리밍 금지...이유는?", BLOTTER, 2019년 06월 12일 수정, 2023년 05월 22일 접속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29376>
- "크롬", 유튜브 고객센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53834?hl=ko> 2023년 수정, 2023년 05월 22일 속